

연중캠페인 / 나눔의 손잡기

도와주세요

급성 백혈병 투병중인 황초희양



명신여고 3학년 여름방학 때 발병한 급성 림프모구성 백혈병으로 지난 해부터 투병중인 황초희 양(19). 휴학을 하고 가톨릭 성모병원 조혈모세포 이식센터에서 4차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황양은 골수이식을 받으면 새 삶을 살 수 있는 상태다.

황양의 가족은 한국 일본 대만 미국 골수 센터 등에 의뢰, 미국에서 골수 일치자 2명을 찾아 골수 이식을 기다리고 있다. 그러나 골수운반비용 및 이식 비용이 약 8천만원 정도 예상돼 비용마련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치료비 선지급 때문에 집을 팔아 1억원에 가까운 치료비를 지불한 황양의 가족은 현재 월세방에서 지내고 있다.

모금운동을 펼치고 있는 조계종 포교원과 중앙신도회는 "불자들의 힘으로 투병하고 있는 한 소녀의 생명을 되살리자"며 적극 동참을 호소했다. (02)733-7277

나눔의 손잡기 성공

윤선에 -1만원  
변용태 -10만원

총 누적금액: 38,943,470원

2005년 나눔 캠페인 어떻게 진행되나

본사는 지난해에 이어 2005년에도 연중캠페인 '나눔의 손잡기 운동'을 펼칩니다.

한국사회가 국민소득 2만달러 시대에 근접하며, 나눔과 봉사가 사회의 아젠다가 되고 있는 시점에서 본사는 부처님의 동체대비정신을 바탕으로 함께 나누고 모두가 잘사는 세상이 되도록 나눔운동에 한층 박차를 가하고자 합니다.

♥ **나눔의 범보시 운동 전개** 군부대나 교도소, 대학, 어린이 청소년 법회가 열리는 사찰이나 복지시설 등에 신문을 보내는 범보시 운동을 전개합니다. 또 농어촌이나 낙도 그리고 불우 이웃들에게 신문을 보내 마음의 풍요를 주는 운동을 전개합니다. 월 1천원 1구좌로 보시처를 지정해 신청하시면 됩니다.

♥ **나눔단체를 소개합니다** 나눔단체를 탐방하고, 주요사업으로 보이는 봉사현장을 소개합니다. 또 각 단체가 소개하는 후원이 필요한 곳도 제보 바랍니다.

♥ **나눔의 성공 모으기** 나눔성금 모금운동도 지속적으로 전개합니다. '소년소녀가장 돕기 기금' '독거노인 유유보내기 기금' '시설아동 지원기금' '장애우 돕기 기금' 등에 전달할 기금은 본사 나눔의 손잡기 계좌(국민은행 006-21-0587-583 예금주: 김원우)로 접수하면 됩니다. 또 전화 한통화로 3천원을 기부할 수 있습니다. 본사 ARS(060-700-1080)를 통해 성금을 기탁해주세요. ♥ **협력종단 및 단체 지원사업** 올해 협력 종단 및 단체들과도 계속적인 지원사업을 전개합니다. 또 대원봉사 및 우리는 선우와 나눔의 등달기 행사를 공동개최합니다.

♥ **어려운 이웃 및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 소개** 정기적으로 어려운 이웃의 사연을 소개하겠습니다. 또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에서 보이는 소년소녀가장돕기 사업도 제보해주세요.



수증 스님의 전시회에는 자유분방한 붓터치가 살아있는 60여점이 공개된다. 연꽃그림 '和順愛語(화인애어)'.

독거노인 돕기 연꽃그림 자선展

수증 스님, 수익금 전액 기부...3월30~4월5일 경인미술관



허름한 단칸방이 즐비한 강동구 강일동. 이 지역의 재개발이 결정되면서 오갈 데 없는 독거노인들의 시름이 커졌다. 방을 비우자니 주어진 이주비로는 거처를 마련하기 힘들고, 임대아파트 입주권을 신청하니 아파트가 들어설 때까지 살 곳이 없다. 이들을 위해 한 비구니 스님이 자신의 연꽃 그림들을 내놓았다.

서울 금화사 주지 수증 스님(사진)은 3월 30일~4월 5일 인사동 경인미술관에서 무의탁 독거노인 돕기 연꽃그림 자선 전시회를 열고, 판매된 그림의 수익금 전액을 이들에게 기부한다. '사회복지법인 나눔마을(대표 각현)' 이사도 물심양면으로 지원을 아끼지 않았던 스님이지만, 올 봄 안으로 길거리에서 나앉을지 모르는 노인들을 위해 선뜻 자선전시회를 제안했다. 조성된 기금은 '노인 그룹홈'을 마련하는데 쓰여진다.

다. 현 거주지에서 멀지 않은 곳에 2-3개 방이 있는 집을 얻고 노인들 5-6명이 생활할 수 있는 그룹홈을 꾸리는 것이 스님의 계획이다. 스님은 "낮선 환경과 차가운 시선을 두려워하는 노인들을 위한 안정된 공간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스님은 이번 전시회의 화제(書題)도 화안애어(和順愛語)라고 지었다. 환하고 밝은 얼굴빛, 그리고 정이 담긴 따뜻한 말 한마디야말로 이웃에 대한 가장 진솔한 자비의 실천이라는 생각에서다. '뒤아서 증득하는(수증·修證)' 마음으로 그린 그의 60여 점의 연꽃 그림에도 그 같은 생각이 그대로 묻어났다. 안전한 수행자의 모습을 담은 초기 연꽃 그림과는 달리, 그의 최근 연꽃에서는 자유분방한 붓터치와 화려한 색감이 살아 있다. 꽃이 향기를 나눠 주면서도 그 대가를 바라지 않듯, '봉사'라는 경계를 어린 스님 마음자리의 반영이다. (02)429-1488

강신재 기자

"내손으로 비누 만들었어요"

한솔복지관 장애아동 체험학습

"고양이 모양 비누 만들래요." 사회복지법인 승가원 성남 한솔복지관(관장 성화)이 장애아동들을 위해 3월 16일 경기도 화성 허브농장에서 연 '햇살교실' 체험학습 현장. 장애아동 14명과 SK C&C 자원봉사자 14명이 하루 동안 일대일 결연을 맺고 허브향 가득한 비누 만들기에 흠뻑 빠졌다. 상민(가명·10)이와 함께 '고양이 비누'를 만들던 정우석(31)씨는 "봉사하는 사람은 따로 있는 줄 알았는데, 아이들과 이렇게 자연스럽게 어울릴 수 있어 기분이 좋다"며 환하게 웃었다.



장애아동들과 SK C&C 직원들의 즐거운 시간.

한솔복지관 관장 성화 스님은 "극히 한정적인 장애인 프로그램의 틀에서 벗어나 장애아동들이 사회의 다양한 모습을 인지할 수 있도록 체험 학습을 운영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03)716-4214 화성=김강진 기자

나눔단체-릴레이 탐방

구로종합사회복지관 연화회·보리회

"서로 끌어주고 밀어주고"



매주 금요일 구로복지관에는 연화회와 보리회가 연합하여 복지관을 찾은 노인들에게 맛있는 점심을 대접한다. 사진은 3월 11일 연화회장 이연(오른쪽), 보리회 회원의 봉사 모습.

"오늘따라 밥이 아주 맛있어!" "아유, 우리 어르신 보살님을 솜씨가 좋으셔서 그렇지요."

3월 11일 서울 구로종합사회복지관(관장 적산, 매주 금요일)마다 노인들에게 배식을 하고 있는 보리회 회장 장인자(57) 보살에게 복지관을 찾은 지역 저소득 어르신들이 한마디씩 칭찬을 한다. 그러자 보살은 복지관에서 노인들의 식사를 책임지는 봉사팀인 연화회 보살들의 음식 솜씨 자랑에 여념 없다. 서로 다른 모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십수 년을 함께한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는 이들은 구로구 봉사팀인 연화회와 폭동법안정사(주지 효경) 도반 모임 보리회다. 구로복지관의 역사와 함께해온 연화회. 13년 전 구로복지관이 개원하자 찾아온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집에 가서 가져온 식료품으로 노인들의 점심을

만들어 냈다. 연화회는 구로복지관 자원 봉사자들의 틀을 만든 장본인들이었다. "어르신 봉사자들이 참 대단하세요. 그 뒤를 또 저처럼 젊은 사람들이 이따 나나가야지요."

연화회의 활동 사항에 감탄하면서도 이제 자신들도 함께 이끌어가겠다는 의지를 강하게 보이는 보리회. 구로복지관에서 일한 것은 2년 정도지만, 이미 5년 이상 다른 시설에서 독거노인들의 식사 수송 차량에 여념 없다. 서로 다른 모임에서 활동하는 자원봉사자들이지만 십수 년을 함께한 것처럼 호흡이 척척 맞는 이들은 구로구 봉사팀인 연화회와 폭동법안정사(주지 효경) 도반 모임 보리회다. 구로복지관의 역사와 함께해온 연화회. 13년 전 구로복지관이 개원하자 찾아온 노인들에게 점심을 제공하면서 봉사를 시작했다. 초창기에는 자신들의 집에 가서 가져온 식료품으로 노인들의 점심을

이렇게 봉사자들이 세대를 넘나들며 서로 끌고 밀어 함께 가고 있어 구로복지관 노인식당에는 언제나 웃음이 묻어난다. 이제 더 젊은 봉사자들이 활동해주시기를 바라는 마음은 공통으로 간직하면서 연화회와 보리회는 봉사를 할 수 있는 그날까지 함께 활동하기를 서로 소망하고 약속한다. 김강진 기자

■후원해 주세요-아이들에게 책과 컴퓨터를

구로복지관에서는 올 2월부터 '빈곤 아동·청소년 지원사업'을 펼쳐왔다. 매주 토요일, 지역 내 빈곤 아동들에게 무료 식사제공은 물론 학습실 및 컴퓨터실을 개방해 공부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준

다는 계획이다. 연화회 이연 팀장은 "아직 초창기라 물품이 많이 부족해 아이들에게 책이나 집에서 쓰지 않는 컴퓨터를 전달하면 커다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귀띔했다. (02)852-0525

## 한국불교 해동종 창종 7주년 기념법회

종 정	해 운 경 우	
부 종 정	대 곡 범 보	
사서실장	보 각	

승정원장	용성 일암	원로원장	도운
총무원장	도암 혜우	포교원장	혜정
중회의장	대법	부 의 장	정관, 도일
사정부장	천강	총무부장	정일
교육부장	법헌	사회부장	지원
총무국장	도일	교육국장	인묵
포교국장	도승	사정국장	해월
		재무부장	도봉
		포교부장	도월
		사회국장	도법
		총무부원장	화도

■ 일 시 : 2005년 3월 26일 오전 11시    ■ 장 소 : 충주 이화예식장

■ 문 의 : 한국불교 해동종 총무원 043)853-2855

##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

신비의 상징, 길상의 상징, 불법을 수호하는  
신 용, 인도에 사는 용 종족들이 숭배하는 신화의 용  
대한민국 최초로 거대한 용을 조성 하였습니다.  
용의 배속에 천불천 일천불 부처님이 타고 계시며  
용의 몸통속에 7만 7천 부처님을 봉안할 예정입니다.  
대한민국 최초 최대의 용이 탄생하였습니다.

◆ 이곳방생지 - 칠포해수욕장. 보경사는 15분거리    용의크기: 넓이 20미터, 높이 2.5미터, 길이 108미터

**「중국에 가셔야만 탈 수 있는 용, 한국에서도 탈 수 있다!」**

사바세계 일체중생은 신비의 용을 친견 함으로써 번뇌 망상은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일체중생의 어리석음을 깨우쳐 주시고 관세음보살님 42수 진언의 소원 성취를 증득하실 길장이 바로 **칠포 대원사 성지순례**입니다. 전망은 푸른바다와 들판, 뒤로 수려한 명산이 병풍처럼 둘러 싸인 곳. 이곳이 바로 성지순례의 공덕, 길지라 하옵니다.... (응급 구세요)

문화관광부 사단법인 제141호 한불총02-44호 등재

### 대한불교 (禪) 선종 총림 칠포 대원사

전화 : 054-261-7777 / 팩스 : 054-261-6119